

◎한국 IPG의 활동

·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주제로 제37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01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5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2차 전기 관련 특허 출원 급증
-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2024년은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윤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한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KIPRIS는 유료 검색 서비스일까요?

① ○ ② ×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주제로 제37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한국 IPG 리더 인사 장면

일본 애니메이션 및 만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점에 있는 만화책 코너에는 수많은 일본 원작 만화책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자체는 책이나 OTT, 영화 등 비즈니스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콘텐츠가 가진 매력에 따라서는 관광 유치 등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자리는 콘텐츠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함과 동시에 그 매력에서 나타나는 효과 등에 대해 이해하는 목적으로 2024년 2월 26일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매력’이라는 주제로 제37회 한국 IPG 세미나(일본특허청 위탁 사업)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JETRO 서울사무소의 오오즈카 부소장이 콘텐츠 사례를 들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키노시타 유야 소장 보좌가 일본 콘텐츠를 한국 국민에게 널리 알린 애니메이션 및 게임 페스티벌에 출전한 체험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공익사단법인 시즈오카현 국제경제진흥회 서울사무소의 다카하시 마코토 소장이 시즈오카현에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성지 관점에서 지자체와 애니메이션 콘텐츠와의 관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애니메이션 및 만화 관련 콘텐츠와 비즈니스 및 지적재산, 지자체와의 관계 등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애니메이션, 만화, 유튜브에서 바라보는 저작권의 모습

먼저 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부소장이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작권의 본래 모습?

우리는 최근에 저작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저작권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책(글)이나 음악, 동영상 등을 제작한 사람이 소유하는 하나의 권리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자 권리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는 저작권격권과 복제권, 상영권, 배포권 등으로 이루어지는 허가권을 포함한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리로서 실연가 등의 권리로 실연가의 인격권과 보상 청구권, 허가권, 재산권으로 구성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권리가 존재하는 저작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장면에서 저작물을 다룰 경우 저작권 처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가능케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작권 핵심에 대해 몇 가지 소개드립니다.

저작권은 특허와 디자인(의상),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심사 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감독관청에 신청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반면 권리 발생 시기 등이 논의될 시에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 다소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는 저작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저작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과 관련된 한국의 법령은 JETRO 서울사무소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저작권자가 이용허락만 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작권에는 여러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어떤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할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된 이용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때는 개별 협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 지브리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작품의 한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상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

용하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일정 조건 하에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권리 기간이 지났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글을 인용하시겠지만 무작정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인용 시에 일정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G



'애니메이션, 만화, 유튜브에서 바라보는 저작권의 모습' 강연 장면

● 'Anime X Game Festival 2023에서의 출전 체험기'

다음으로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키노시타 유아 소장 보좌가 2023년 12월 2일과 3일에 한국 KINTEX에서 개최된 'Anime X Game Festival 2023'에 출전한 체험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Anime X Game Festival 2023에서의 출전 체험기' 강연 장면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한국에서 공식 애니메이션 및 게임 분야 행사인 'Anime X Game Festival'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2018년에 약 33,000명에서 2023년에는 약 66,000명까지 2배가량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책과 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가지 콘텐츠, 각종 PR과 물건 판매, 토크쇼 등 무대 행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도 해당 행사에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PR 코너'에서는 팸플릿과 포스

터 게시 및 배포, 애니메이션 협업 동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고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배포물에 게재된 상표도 한국 측 판권 보유 상황에 맞춰 재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할지 혹은 다른 방법을 취할지 여부는 각각 권리관계에 맞추어 그 방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가 협업한 패널을 배치해 방문자가 패널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일러스트 및 패널 포토스팟'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를 사용하기에 앞서 판권 보유자들에게 허가 의뢰를 하거나 데이터 가공, 저작권 표시 기재 등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행사 코너'에서는 포토스팟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설문조사 및 스탬프 랠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해 스탬프 랠리 참여자 수는 약 2,0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유명 성우들이 함께한 '성우 초빙 토크쇼'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성우사무소의 사용 허가 등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토크쇼 발언 내용 또한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코스튬 플레이 어 PR과 관련해서도 검토했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이러한 출전 경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IPG



'Anime X Game Festival 2023' 개최 당일 현장 모습

● '콘텐츠와 지자체 협업 (시즈오카현 사례)'



'콘텐츠와 지자체 협업(시즈오카현 사례)' 강연 장면

이어서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다카하시 마코토 소장이 '콘텐츠와 지자체 협업(시즈오카현 사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약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시즈오카현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역사적인 명소가 많은 관광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시즈오카현 콘텐츠 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전부터 시즈오카현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 '이즈의 무희' 무대였던 이즈시 가와츠초 등 관련 명소를 찾아다니는 관광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설 등 문학 작품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응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 '문학비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비'는 콘텐츠의 무대화된 장소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방문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투어리즘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비와 마찬가지로 NHK 대하드라마 무대가 된 지역에 많이 마련하는 '대하드라마 특별전'도 효과적입니다. 시즈오카현과 관련이 있는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대하드라마에는 '어떡할래 이에야스'와 '가마쿠라도노의 13인' 등이 있는데 이 드라마도 대하드라마 특별전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분야에서 흔히 '성지순례'라 불리는 애니메이션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콘텐츠 투어리즘도 인기가 많습니다. 시즈오카현이 무대가 되었던 콘텐츠에는 '마루코는 아홉살', '여름색 기적', '리브라이브! 선샤인!!', '유루캠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단체,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루캠즈'이 시즈오카현과 협업해서 발행한 '후지산 이즈반도 모델 지역 맵'에는 '지오파크' 등 명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IPG


● '콘텐츠 매력에 대해 자유토론'



'콘텐츠 매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장면

마지막으로 발표자 세 명이 '콘텐츠 매력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텐츠와 물건 판매에 대한 이슈와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만화책이 원작인 드라마 작품의 원작자와 각본가 사이에서 발

생한 갈등 문제에 대해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종이 만화책과 웹툰의 차이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매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후기를 마칩니다. 본 원고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폭넓은 정보도 날마다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1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가어드바이스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 *입니다. KIPRIS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허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KIPRIS 이용 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색건수는 3,300만 건(2012년)에서 1억 2,000만 건(2023년)으로 3.7배 늘어났으며 방문횟수는 1,800만 회(2012년)에서 4,100만 회(2023년)로 2.3배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news KOREA IP NEWS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2023 위조상품 대응기술 안내서(가이드북)' 발간

| 한국특허청 (2023.10.2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혁신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3 위조상품 대응기술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가이드북)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 제품에 위조상품 대응기술을 적용시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장에서는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별 평가요소*, 본 안내서(가이드북) 활용 시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안내서 활용법을 제시했다.

*①기술도입 용이성, ②판정신뢰성, ③사용편의성, ④활용성, ⑤확장성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 위조상품 대응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기술유형별 특징, 장·단점, 실제 적용사례 및 추천 산업분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기업이 위조상품 대응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위조상품 대응기술 보유업체(12개사)를 소개했다.

안내서(가이드북)은 특허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30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② 제31차 한-일 특허청장회의 개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논의

| 한국특허청 (2023.11.30.)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 30.(목) 11시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제31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Inventorship) ▶녹색기술의 특허분류 ▶특허제도의 국제 조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분야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개최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특허청에서 한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자료(데이터) 전문(全文)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물론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선행 특허기술 검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특허청, 세계 최초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 구축

| 한국특허청 (2023.12.21.)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LG 인공지능 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LG 인공지능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라미터 규모로 설계됐으며 2차에 걸친 학습 과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 7종의 정보: 국/영문 특허공보, 통지서, 기계번역·시피시(CPC)분류·기계독해 정보, 상담사레지

특허청은 이번에 구축된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초로 내년부터 특허 검색, 분류 등 심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④ 기술·상표경찰 수사 범위 확대,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 한국특허청 (2023.12.21.)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되어 있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되어 있다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님에도 영업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표지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정보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File No.182

2차 전지 관련 특허 출원 급증



특허청은 9월 18일(월)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2차 전지 관련 특허 출원이 2023년 상반기에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는 지금 표준특허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관점에서 이번 특허청 발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차 전지란?

이번 호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2차 전지 외에 1차 전지도 있습니다. 1차 전지란 알칼리 건전지, 망간 건전지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 전지의 기전력이 감소하는 일회용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는 사용함에 따라 기전력은 감소하지만 충전하면 원상 회복되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지금도 알람 시계처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에는 1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재충전을 통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사용도 점차 증가해 일반화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대형 2차 전지(일반 가정에서 전력 축적 시 사용)의 경우, 전기자동차 동력원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업계 실태조사 결과

한국 산업기술보호법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및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및 제조, 양자까지 총 13개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 있는 산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분야이거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로 현재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관련 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 출원건수는 2022년 상반기 103,437건에서 2023년 상반기 107,6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정도 미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COVID-19가 특허 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6%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출원 건수가 많은 분야는 2차 전지로 전년 동기 대비(1~6월) 890건 증가한 8,660건(11.5% 증가)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EU에서는 단

소중립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 전지의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당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2차 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7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1건 증가한 6,580건으로 15.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특허 출원인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다출원 상위 5개 출원인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37.6%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 향후 전망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최근 첨단 기술 관련 특허 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향후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전문 심사관 확보 등의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 내에 새로운 심사 체제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향후 그 외 국가핵심기술 분야에도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심사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특허 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해 국제 전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에 주목하여 세계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183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2023년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해설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양력 10월 9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경일로 한글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글날을 맞아 '제8회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 대회는 한글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2023년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25일(금)까지로 매해 한글날인 10월 9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된 2023년 8월 기준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며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선정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 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응모된 상표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한글 규범성 또는 고유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개),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개),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7개)를 선정했습니다.

2. 올해 우수상표 수상작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나들가게'가,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선정되었으며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아침햇살', '고슬고슬비빈', '사랑에 빠진 딸기', '기죽지마', '꿈비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상표'로 선정된 '나들가게'는 '나들목(인터넷인의 우리말)'이나 '나들(드나들기 편한)' 등 유사한 단어를 쉽게 연상시키는 조어로 업종을 잘 드러내며 참신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상표는 로고(예: 마크 등), 하나의 문자 또는 여러 문자로 구성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명칭 그대로 한글 발음 또는 의미, 그리고 상표로서 업종과 서비스 등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 제8회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수상작 소개

(수상작 중 3건 소개. 상표 이미지는 특허청 보도자료 인용)

-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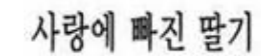


드나들기 편한가게


-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3. 글자 의미와 상표를 통한 브랜드

특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대회는 외국어 상표 또는 디지털 약어와 은어 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널리 모집하여 친근하면서도 부르기 쉬운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본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글자의 미 또는 도형 형태, 글자가 갖는 세계의 깊이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글자를 활용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출처 혼동 없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융합되어 표장을 통해 미래 유망한 상표 출원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상작에는 비비고 등이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상표를 통한 사업화 성공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184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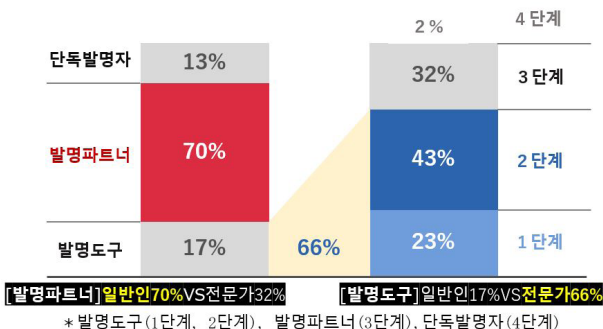
2023년 11월 14일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출원한 ‘DABUS’ 특허 출원에 특허청과 서울 행정법원 모두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설문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2023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특허청이 이번에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게 한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 층의 관심도가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인공지능 기여도와 적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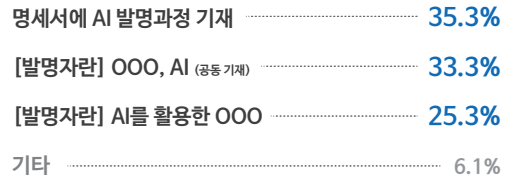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인은 일상생활에서 Chat GPT, 생성형 인공지능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존재 의미를 인정한 결과거나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 A: 일반인(왼쪽)과 전문가(오른쪽) 간의 AI 기술 수준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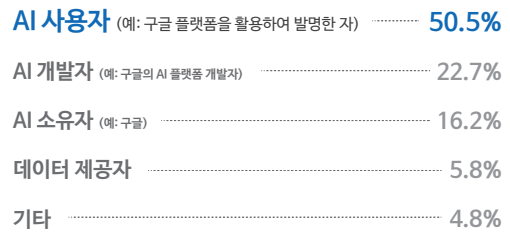
AI의 발명자 기재 허용시 기재 방식



결과 B: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 인정시 적정 특허권자



결과 C: AI의 특허권자 인정 여부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는 약 60%가,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 여부는 약 76%가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3.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적합한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은 발명자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고도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발명을 창출한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IPG}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츠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신재생부장 등을 역임.